

TOURISM SCOPE

2016. Vol. **37**
ISSN 1739-5089

The Official Magazine of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Gimhae Gaya Theme Park, Gimhae city, Korea

김해와 부산이 함께하는

2016

허왕후 신행길 축제



「허왕후 신행길 축제」 - 수로왕과 허왕후의 이야기 -

날짜 2016년 11월 5 ~ 6일 장소 화명 생태공원과 김해가야테마파크

*개막식 2016년 11월 5일 17:00, 화명 생태공원

허왕후의 이야기

수로왕과 허왕후의 혼례는 한국사에 처음 기록된 국제 결혼이다. 전설에 따르면, 서기 48년 인도 아유타국의 허공주가 금관가야의 시조 수로왕과 약혼하기 위해 배를 타고 한국에 왔다고 전해진다.

허왕후 신행길 축제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개최돼, 1500여 명의 관광객들이 김해시의 대성동 고분과 부산광역시의 화명 생태공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두 도시의 공동 프로젝트로, TPO가 진행했다. 올해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 2000년 전 인도의 허왕후가 가야의 수로왕과 혼례를 갖기 위해 한국을 찾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김해시의 공동 관광상품 개발 프로젝트인 '허왕후 신행길 축제'는 지역의 역사와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한 공동 프로젝트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Contents



04 Special Theme

역사·문화유산 탐방로로 떠나는 시간 탐험, 타이핑

08 City Inside

처음 만나는 타이완, 1박 2일 가오슝 여행

12 Focus On

지금 김해에 가야 하는 3가지 이유

16 Concept Travel

일상 탈출 일번지, 세계의 해변

20 TPO People

김해시장 허성곤
김해, 역사문화 유적지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관광 자원

22 TPO News

TPO 뉴스

24 Festival Calendar

TPO 도시회원 축제 캘린더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네트워크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관광 분야 국제기구입니다. TPO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도시 간 관광산업 정보 교환을 비롯해, 관광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 관광 분야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TPO에는 2016년 10월 기준으로 78개 도시 정부와 38개 민간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 회원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협회, 연구 기관, 관광지 마케팅 기관(DMO)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PO는 아시아·태평양 내 도시 관광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타이핑의 숨결이 깃든 역사의 흔적을 기억하며 역사, 문화유산 탐방로로 떠나는 시간 탐험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타이핑의 삶과 영혼은 곳곳에서 살아 숨 쉰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 문화 유적들은 곧 사라질 지도 모른다. 타이핑(Taipung)은 도시 설계 관점에서 볼 때, 말레이시아의 첫 전원도시이자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이다. 특히 '역사·문화유산 탐방로'의 녹지 옆으로 길게 늘어선 유럽풍 식민지 건물들은 방문해볼 만한 가치를 여실히 드러낸다. 에디터 전채현 사진 제공 TPO

영국 정부의 지배를 받게 된 비운의 역사

타이핑의 역사는 140년 전, 이 지역의 주석광산 활동과 함께 시작됐다. 당시 말레이 추장이었던 '투안 롱 자팔(Tuan Long Jaafar)'은 아주 큰 광산을 운영했고, 아삼 쿨방에 있는 커피 농장과 쿠알라굴라의 사탕수수 농장 등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막강한 경제력 덕분에 여러 중국 광부까지 고용했을 정도. 그런데 타이핑에 라룻 전쟁(페랑 라룻)이 일어나 주석 생산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심지어 엔가 이브라힘(Ngah Ibrahim)은 영국의 장교 캡틴 스피드를 회계관리 직원으로 고용하고,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 기간 동안 평화와 치안을 책임질 경찰의 수장으로 임명하기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영국 정부를 타이핑의 행정에 개입시키게 만든 계기가 된다. 결국 영국은 음모론을 펼쳐 투안 이브라힘(Tuan Ibrahim)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다. 영국은 J.W.W. Birch(말레이시아 페라크 주의 첫 영국 시민)의 살인 사건에 투안 이

브라힘을 성공적으로 결부시키며, 1877년 스카이초엘 섬으로 보내 투옥시킨다. 1874년 영국은 영국인 사회의 행정을 재정비하고자, 타이핑을 다시 설립하고 발전시키기에 이른다. 그로부터 130년이 흐른 지금, '역사·문화유산 탐방로'의 흔적을 찾으러 떠나보려 한다.

타이핑의 역사·문화유산 탐방을 위한 명소

타이핑에서 여행하는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여러 명소들을 살펴보려 한다. 무엇보다 '역사·문화유산 탐방로'는 타이핑에서 휴가를 만끽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신선한 공기를 찾아다니며 산책하는 것(마칸 안진, Makan Angin)만으로도 매순간이 행복할 수 있다. 평화롭고 고요한 문화 유적의 향기는 물론 흥미로움으로 가득한 타이핑. 이곳에서 즐길 만한 명소는 다음과 같다.



SPECIAL THEME



- 1 타이핑 동물원 & 야간 사파리 Zoo Taiping & Night Safari
- 2 바위 정원 Rock Garden
- 3 자귀나무 산책로 Rain Tree Walk
- 4 중국식 탑 Chinese Pagoda
- 5 다영 보트 타기 Dayung Boat Ride
- 6 25년제 해변 부두 Silver Jubilee Jetty
- 7 F.M.S 음식 가판대 F.M.S Food Stalls
- 8 타이핑 공립 도서관 Taiping Public Library
- 9 북 페라크 타이핑 광동 협회 Kwangtung Association North Perak Taiping
- 10 순 탁 협회 Shun Tak Association
- 11 옛 시계탑 Old Clock Tower
- 12 평화 호텔 Peace Hotel
- 13 북경 호텔 Peking Hotel
- 14 타이핑 시장 Taiping Market
- 15 타이핑 옛 모스크 Taiping Old Mosque
- 16 타이핑 암만 신전 Amman Temple, Taiping
- 17 타이핑 호시안 신전 Hosian Temple, Taiping
- 18 대만어 협회 Hokkien Association
- 19 영수의 주택 Residence of the Territorial Chief
- 20 시크 예배당 Sikh Gurdwara
- 21 타이핑 철도역 Taiping Railway Station
- 22 세인트 조지 학교 St. George School
- 23 킹 에드워드 7세 학교 King Edward VII School
- 24 타이핑 숙박 시설 Taiping Rest House
- 25 타이핑 시립 미술관 Taiping Municipal Gallery
- 26 정금귀 캄틴의 집 Kapitan House of Chung Keng Kwee
- 27 타이핑 우체국 Taiping Post Office
- 28 타이핑 전신국 Taiping Telegraph Office
- 29 지역과 국유지 관리국 라룻 마탕&세라마 District and Land Offices Larut Matang & Selama
- 30 산책로 들판 Esplanade Field
- 31 어시스턴트의 주택 Assistant Resident House
- 32 뉴 클럽 The New Club
- 33 메스 장교 Officer Mess
- 34 올 세인트스 교회 All Saints Church
- 35 타이핑 페라크 박물관 Perak Museum, Taiping
- 36 타이핑 감옥 Taiping Prison
- 37 부킷 라룻(맥스웰 언덕) Bukit Larut(Maxwell Hill)
- 38 대관식 수영장 Coronation Swimming Pool
- 39 타이핑 참전자 묘지 Taiping War Cemetery
- 40 버마 수영장 Burmese Pool





여행 정보 팁
 타이핑 시는 다양한 국가적인 행사를 주최하는데, 그중 '부킷라웃의 왕', '레인타운 하프마라톤', '주라마', '페리크 행사 박물관', '예술유산 타운', '페리크 유산 전시회' 등이 특히 유명하다.



“과거에 지은 건물들은 미스터 스위트햄의 조언에 따라 건축학적인 허세와 가식들을 크게 개선해, 다른 옛 식민지의 건물들과 비교했을 때도 건축의 아름다움과 디자인, 정교한 세공까지 의심할 여지없이 최고라고 인정할 만하다.”
 - 휴로경, 페리크 시민 (1884~1899)

타이핑 시는 '역사·문화유산 탐방로'를 통해 타이핑의 역사와 문화유산적인 요소, 자연보호 지역을 홍보하며, 여행자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려 한다. 타이핑을 여행한다면, '역사·문화유산 탐방로' 외에도 볼거리가 차고도 넘치니 꼼꼼히 계획을 세워보길 추천한다. 무엇보다 '역사·문화유산 탐방로'를 따라가면, 건물들 사이를 누비며 도시 중심에 있는 역사, 문화유산 명소를 모두 돌아볼 수 있다. 타이핑의 초기 역사를 살펴보면 롱 자팔, 엔가 이브라힘, 그히 힌, 하이 산, 그리고 팡콜 조약 등

이 자주 언급된다. 이 스토리라인에서 말레이 주와 라웃의 전환점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역사·문화유산 탐방로'를 따라 여행할 때도 이 부분을 기억하면, 타이핑의 역사를 이해하기 쉽다. '역사·문화유산 탐방로'는 건축학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해, 여행자라면 꼭 들러야 할 명소라고 권할 수 있다. 게다가 타이핑 시민들은 친절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는 타이핑으로의 여행, '역사·문화유산 탐방로'로 하루 빨리 향해 보자.

산 위에 있는 부킷라웃을 찾아가려면 산자락에서 정상까지 이어진 포장도로를 통과해야 한다. 총 길이는 10km로, 하이킹을 하거나 지프 자동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 부킷라웃은 해발 1,250m에 위치하며, 페라크의 타이핑 도시에서 3~5km 떨어져 있다. 이곳은 말레이시아에서 습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연평균 200인치의 강우량을 보인다. 부킷라웃은 역사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산간 피서지 마을이며, 윌리엄 에드워드 맥스웰(페라크의 영국 보조 시민)이 처음 마을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884년 영국 제국의 장교들과 가족들을 위한 휴양지로 운영됐다. 1910년엔 부킷라웃의 산간 피서지 마을과 주변 지역이 영구보존림으로 선정되며, 다시 한 번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아름다운 부킷라웃은 수많은 동식물의 터전이다. 이곳에는 야생 난과 야생 공작야자, 거대한 나무고사리, 우람한 나무 등 갖가지 식물군이 서식하고 있다. 야생동물로는 길손 긴 꼬리 원숭이와 야생 고양이, 직능 사슴, 산양, 코뿔새, 각종 새들이 살고 있다.

부킷라웃에서는 구능 하자우 산책로에서 정상을 향해 선 채, 들새를 관찰하는 것이 유명하다. 맑은 날에는 팡코르 섬 주변으로 말라카 해협의 환상적인 해안 지대까지 구경할 수 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지프 투어도 여행자의 관심을 모은다. 한번에 8명까지 태울 수 있으며, 정상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35분 사이. 정상에 오르면 타이핑 타운과 아름다운 해안의 눈부신 하모니를 두 눈에 빼곡히 담을 수 있다.

타이핑을 방문하는 여행자라면 타이핑 동물원과 야간 사파리, 타이핑 호수 정원 등을 체험해보길 권한다. 두 곳 모두 유명한 여행지인 것은 물론, 부킷라웃 언덕 아래에 있어 접근성도 좋다. 말레이시아에서 아주 작은 산간 피서지 마을로 알려진 부킷라웃. 이곳에선 초대 식민지와의 차별화된 특색들이 가득해 볼거리도 많고,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까지 누릴 수 있다.



여행 정보 팁

이동을 위한 랜드로버와 지프 자동차는 언덕 밑에서만 탈 수 있다. 차편의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8시 반~저녁 5시 반까지, 가격은 성인 RM10.00 어린이 RM 5.00이다.



많고 깨끗한 공기 가운데 편히 숨 쉴 수 있는 곳 부킷라웃, 자연을 품다

부킷라웃은 타이핑 타운을 배경으로 한 영구 보존림이며, 과거엔 '맥스웰 언덕'으로 불렸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은 현지인과 외국인들 모두에게 아주 널리 알려져 있다.



처음 만나는 타이완 1박 2일 가오슝 여행

타이완 하면 맛있는 음식, 아기자기한 골목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것만이 타이완의 전부일까?
대만 불교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불광산, 버려진 부두 창고를 개조해 만든 보얼예술지구, 가장 아름다운 선셋이 펼쳐지는
시즈완 해변까지. 처음 만나는 타이완의 얼굴, 가오슝을 찾았다.

에디터 정은주 사진 정은주 취재 협조 중화항공 www.china-airlines.com, 엘트레블 www.tourtaiwan.co.kr



가오슝 시 여행 정보

위치 타이완 남서부 **면적** 2946km² **인구** 2,769,072(2010년) **기후** 바다와 인접한 가오슝은 여름에 고온다습하다. 겨울엔 쌀쌀하지만 혹독한 편은 아니다. 연평균기온은 18.6~28.7℃, 습도는 60~81%다. **개요** 남부 타이완 최대 도시로, 수출입 물동량 세계 4위에 달하는 대표적인 항구도시다. 해안 매립지엔 가오슝 가공수출지구가 설치되어, 알루미늄과 시멘트, 정유, 제철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1 DAY

불타 기념관

불광산

연지담 풍경구

아이허 강

2DAY



타이완 불교문화 박물관 / 불타 기념관 佛光山佛陀紀念館

2012에 설립, 본관은 인도 양식으로, 팔정도 탑은 중국 전통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이 중 120m 높이의 황금 불상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불상으로 규모가 압도적이다. 각 탑 안엔 불교 관련 유물과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본관에 불광산의 역사와 부처님의 일생을 소개한 상설관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본관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것으로 유명한데,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주소 84049高雄市大樹區統嶺里統嶺路1號 **관람시간** 평일 09:00~19:00, 주말 09:00~20:00 **전화** +866-7-656-3033 **홈페이지** www.fgsbmc.org.tw



산먼저, 사찰먼저 / 불광산 佛光山

산 전체가 하나의 큰 사찰이다. 불타 기념관에서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된다. 대웅전을 비롯해 불교대학, 숙박 및 편의시설을 겸비한 조산회관과 연못 등 볼거리가 많으니 최소 1시간 정도 여유를 갖고 오르는 것이 좋다. 이 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는 대웅전과 대불성. 총 1만 4800존 불상 가운데 자리한 석가모니, 아미타부처, 약사여래부처 삼존상과 72층 높이의 두 보탑 등이 놓여 있는 대웅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찰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규모가 대단하다.

주소 高雄市大樹區興田里興田路153號 **전화** +866-7-656-1921 **홈페이지** www.fgs.org.tw



가오슝 시민들의 휴식처 / 연지담(렌초탄) 풍경구 蓮池潭風景區

가오슝 도심의 대표적인 공원 중 하나. 원래는 농업용 저수지였는데, 현재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은 도심 속 테마파크 역할을 하고 있다. 내부에 수많은 사당이 있고, 북쪽에는 공자묘가, 남쪽에는 중국 궁전식 누각인 용호탑과 춘추각 등이 있다. 도교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용호탑 왼쪽에는 용의 머리가, 오른쪽에는 호랑이의 머리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용의 머리로 들어가 호랑이의 입으로 나오면 '악운이 행운으로 변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주소 高雄市左營區翠華路 **용호탑 관람시간** 월~일요일 08:00~17:00



가오슝의 야경 스폿 / 아이허 강 愛河

가오슝 시내를 가로지르는 강. 밤이 되면 강변 근처 카페와 주점들이 내뿜는 빛으로 더욱 빛난다. '타이완 85 스카이 타워'를 비롯해 시립 역사박물관, 지방법원 등 시내 주요 시설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그중 유독 높게 솟은 동상 하나가 눈에 띄는데, 머리는 용이고 몸은 물고기 모양이 되어 있다. 높이 25m, 무게 30t의 거대한 규모로 아이허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주소 高雄市前金區河東路 **운영시간** 월~금요일 15:00~22:00, 주말 및 공휴일 09:00~22:00

2 DAY

다거우 영국 영사관



가오슝 시내를 한눈에 / 다거우 영국 영사관 打狗英國領事館

1865년 지어진 타이완 최초의 서양식 근대 건물. 1867년 영국 정부가 타이완에서 철수할 때까지 사용했다. 건물 내부에는 당시의 시대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과 기념품 숍이 있다. 마당에는 당시 영국인들에게 핍박받은 타이완 사람들의 모습을 밀랍 인형으로 재현해놓았다. 과거의 감옥 터도 남아있어, 식민지의 아픈 역사를 느낄 수 있다. 시즈와 해변에서도 계단을 따라 한참을 올라야 할 만큼 높은 곳에 자리해 있다.

주소 高雄市鼓山區蓮海路20號 전화 +886-7-525-0100 운영시간 09:00~21:00

치진 풍경구
(치후 등대 & 치후요새, 풍차 공원)



가오슝 시민들의 주말 나들이 / 치진 풍경구 旗津風景區

가오슝에서 페리를 타고 10여 분 달리면 도착할 수 있다. 페리에서 내리면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빌려주는 렌탈 숍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데, 전기 자전거를 빌려 치진 섬을 둘러보면 편하다. 치진 풍경구가 매력적인 건 아름다운 풍경 외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점. 원하는 해산물을 고르면 즉석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주소 高雄市旗津區廟前路 가격 구산 페리 이용료 성인 15TWD, 청소년 1TWD, 어린이, 노약자 8TWD



치진 풍경구에서 바라본 가오슝 전경 / 치후 등대 & 치후 요새 高雄燈塔&旗後砲台

치진 풍경구 정상에 있는 치후 등대와 치후 요새. 오르기 전에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면 시원하게 펼쳐진 가오슝 해안 풍경에 피로가 한 번에 날아간다. 1883년 영국인들이 붉은 벽돌로 지은 치후 등대는 1916년 일본인들이 다시 확장 건축해 현재 흰색으로 남아 있다. 등대를 벗어나 산등성을 타고 내려가면 치후 요새가 나온다. 이 역시 17세기에 지은 것으로, 중국 스타일의 막사와 팔(八)자 모양을 한 입구가 특징이다.

주소 高雄市旗津區廟前路



시원한 바닷바람 소리가 들리는 듯 / 풍차 공원 風車公園

치진 페리 터미널에서 치진 해수욕장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면 풍차 공원이 나온다. 가오슝 시내에서 처음으로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곳. 비행기 모양의 대형 프로펠러 7개가 돌아가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량은 공원의 밤을 대낮처럼 밝힐 수 있다고. 실제로도 조명을 밝히는 데 활용되고 있다.

주소 高雄市旗津區廟前路

시즈완 해변

국립중산대학교

보얼예술특구

85 스카이 타워

END



가오승에서 맞이하는 선셋 / 시즈완 해변 西子灣

가오승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셋을 볼 수 있는 곳. 해변의 선셋을 즐기기 위해 연인이나 친구, 가족까지 수많은 사람이 방파제에 줄을 지어 늘어서 있는 풍경 또한 인상적이다.

주소 Gushan District, Kaohsiung City, Taiwan 804



바다를 품은 대학교 / 국립중산대학교 國立中山大學

학교 안에 바다가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중산 대학교 안에 해수욕장이 있다. 중국 중산대학교 졸업생들이 1979년 세운 대학으로, 리조트와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하는 복합 공간이기도 하다. 바다를 앞에 두고, 산속에 있어 공기가 맑은 것이 특징. 걸어서 둘러보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크다. 지대가 높은 곳에 있으니 오토바이나 택시를 타는 것이 좋다. 건물 어디에서든 시즈완 해변을 감상할 수 있다.

주소 No. 70, Lianhai Rd, Gushan District, Kaohsiung City, Taiwan 804



부두에 피어난 예술 / 보얼예술특구 駁二藝術特區

버려진 부두 창고를 개조해 만든 예술 공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두는 이제 그 쓸모를 다했지만, 젊은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곳을 예술 거리로 조성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오로지 자신의 작품을 알리고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오늘의 보얼예술특구가 탄생했다. 일부 개조하긴 했지만, 대부분 기존의 공간을 재활용해 사용하고 있다.

주소 高雄市政府文化局版權所有 운영시간 전시 공간에 따라 상이



가오승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 85 스카이 타워 東帝士85國際廣場

가오승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랜드마크. 아래층은 백화점이나 상가로, 37층에서 85층까지는 호텔로 이용하고 있다. 타워의 전망대는 85층이 아닌 74층이다. 쾌속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엘리베이터 천장이 까맣게 변하며 별자리 모양으로 빛나기를 43초. 300m 높이의 75층에 도착한다. 한 층만 내려가면, 가오승의 사진과 그림, 조각품들을 판매하는 기념품 숍과 함께 전망대가 펼쳐진다.

주소 高雄市前金區自強三路1號74樓 전화 +886-7-566-8000 입장료 성인 180TWD 홈페이지 www.85skytower.com

지금 김해에 가야 하는 3가지 이유

알에서 태어난 김수로왕 발자취 따라 흥미로운 시간 여행을 하고, 신어산 줄기 분산성 따라 스카이 투어를 즐길 수 있는 곳.
철기와 토기 유적을 간직한 가야의 땅, 김해에 알쏭달쏭한 유적과 박물관만 가득할 거라 여겼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고쳐먹어야 할 것이다. 낮에는 테마파크에서 신나게 뛰어 놀고, 밤에는 천체망원경으로 총총히 빛나는
금성과 목성을 볼 수 있다. 에디터 최현주 사진 이근수



김해시 여행 정보

위치 대한민국 경상남도 낙동강 서쪽 면적 463.36km² 인구 52만 8876명(2015) 기후 한남도 남단에 위치해 북쪽의 높은 산이 겨울의 강한 북서풍을 막아주고, 남해와 낙동강의 영향을 크게 받아 기후가 온화하다. 개요 동쪽은 양산시와 부산광역시, 서쪽은 창원시, 남쪽은 남해, 북쪽은 밀양시와 접해 있다. 시청은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에 있다.

오감만족 체험형 놀이터 / 김해 가야테마파크

2015년 5월에 김해시 어방동 분산 정상부 일원, 17만 9000m2(약 5만 4000평) 규모의 부지에 조성됐다. 왕의 집 무실인 태극전에 김수로왕과 허왕후 상이 사실감 있게 재현되어 있고, 용머리를 한 쌍어와 거대한 크기의 신령스러운 거북도 전시되어 있다. 그 뒤론 김수로왕의 처소인 가락정전이 있고, 오른쪽에 마련된 허왕후 스토리관엔 허왕후가 인도에서 가야까지 온 신행길의 경로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가야 테마체험(할 만들기, 활쏘기 등), 공예체험(목공예, 매듭, 전통연 만들기), 도자기체험(물레 돌리기, 화분 만들기), 철기체험(주조 관람, 모종삽 만들기 등), 복식체험(가야 전통의상 입기) 등의 체험 색션은 흥미로운 경험과 함께 아이들의 학습 공간으로도 그만이다. 가야마사 어드벤처는 즐겁게 뛰놀며 수로왕의 용기와 기상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어드벤처 놀이터. 시원한 바닥 분수를 중심으로 대형 기마마사 놀이대와 넷트 놀이대, 롤러 슬라이드 등 흥미로운 놀이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주소 경남 김해시 가야테마길 161(어방동) 전화 +82-55-340-7900 운영시간
 여름(3~10월) 09:00~22:00, 겨울(11~2월) 09:00~20:00 입장료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홈페이지 www.gaya-park.com



경전선의 화려한 변신 / 김해낙동강레일파크

밀양시 삼랑진역과 광주시 광주송정역을 잇는 경전선. 이 철로에는 2010년을 끝으로 열차가 달리지 않는다. 김해시는 폐선된 경전선 철로를 보수해 테마파크로 조성했다. 먼저 낙동강 철교에서 생림터널에 이르는 왕복 3km 구간에는 레일바이크가 달린다. 국내에 폐선된 철로를 이용한 레일바이크는 여러 개가 있지만 강 위를 달리는 레일바이크는 김해가 유일하다. 생림터널은 와인동굴로 변신했다. 김해 특산물인 산딸기로 만든 와인을 맛보고 저렴하게 구입도 할 수 있다. 레일바이크와 와인동굴 사이에는 경전선 철로를 달리던 새마을호 열차 2량을 리모델링한 열차카페가 있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입구에는 철교 전망대가 있는데, 해질 무렵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왕의 노을'이라 불릴 만큼 황홀하다.

주소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 473번길 41 전화 +82-55-333-8359 홈페이지 www.ghrp.co.kr



레저 · 체험여행 지금 김해에 가야 하는 첫번째 이유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의 잔치 / 김해천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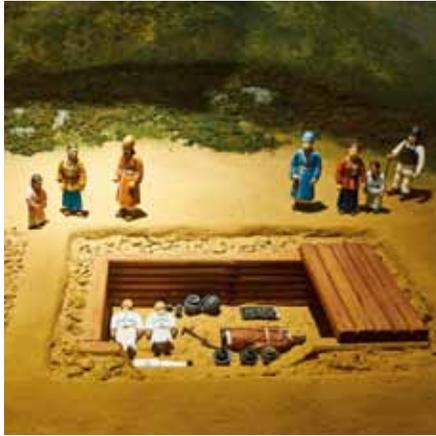
밀레니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2월 1일, 개관한 영남 지역 유일의 시민 천문대. 김해시 내외동에서 동쪽 산을 보면 마치 산이 알을 품은 듯한 모습의 건물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김해천문대다. 천문대는 크게 전시동과 관측동으로 나뉜다. 이중 전시동에선 지구의 공전과 자전, 사계절 별자리, 행성체중계, 천체사진 감상, 망원경의 구조, 미래의 우주도시 모형 등을 살펴볼 수 있고, 지름 8m의 돔 스크린을 통해 실제와 거의 흡사한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다. 김해 시내를 한눈에 담고 싶다면 전망대에 오를 것. 은색의 돔형 전시실 옆으로 김해시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주소 경남 김해시 가야테마길 254(어방동 산 2-80) 전화 +82-55-337-3785 운영시간 14:00~22:00 매주 월요일 휴무 입장료 전시실: 무료 기념별자리 프로그램: 어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 야간천체관측 프로그램: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500원 홈페이지 ast.gdhc.or.kr

금관가야 왕과 왕족의 무덤 / 대성동고분군박물관

작은 구지붕이란 의미의 '왜(애)꼬지' 구릉에 형성된 금관가야 왕과 왕족들의 무덤 유적. 금동제 허리띠, 파형동기 등의 출토 유물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2013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확정되었다. 대성동고분이 자리한 애꼬지구릉은 청동기시대부터 옛 김해인들의 무덤과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가락국 시기의 무덤들이 계속해서 조성되었다. 이 중 상설전시관은 도입과 개관의 장과 고분의 장, 교류의 장, 그리고 문화의 장 등 4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다.

주소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26(대성동 434) 전화 +82-55-330-6881 운영 시간 09: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ds.gimhae.go.kr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왕의 능침 / 수로왕릉

알에서 태어나 '수로'라는 이름을 얻은 수로왕은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인천 이씨의 시조이며 가락국을 창건한 왕. 수로왕릉은 김수로왕의 영혼을 모신 능침으로 '납릉'으로도 불린다. 왕릉 앞 납릉정 문의 화반 위에는 석탑을 가운데 두고 2마리의 물고기가 마주 보고 있는 문양(신어상 또는 쌍어문)이 새겨져 있다. 왕릉을 보고 왼쪽에 있는 비석의 이수에는 태양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 모두가 수로왕비의 나라인 인도 아요디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 한다. 가락국(AD 42~532년)의 시조대왕 무덤인 수로왕릉은 김해의 상징적 문화유적. 웅장한 스케일과 안정감 있는 배치, 군더더기 없이 단아한 건물이 인상적이다.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26 전화 +82-55-330-7313



지금 김해에 가야 하는 두번째 이유 **역사 · 문화여행**



김해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 국립김해박물관

고대국가 중 하나인 가야의 문화유산을 집대성하기 위해 1998년 7월 29일 개관한 박물관. 가야의 건국 설화가 깃든 김해시 구지봉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전시실은 1, 2층으로 되어 있으며, '가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 1층엔 낙동강 하류역의 선사문화와 가야의 여명기, 가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가야 사람들의 삶'을 주제로 한 2층엔 수레바퀴 모양 토기나 굽다리 접시 등 부드럽고 아름다운 가야토기와 철기시대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주소 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190(구산동 232) 전화 +82-55-320-6800 운영 시간 화~금요일 09:00~18:00, 토·일·공휴일 09:00~19:00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gimhae.museum.go.kr



수로왕과 허왕후의 신화가 어린 / 신어산

높이 630m. 수로왕과 허황옥 왕비의 신화가 어린 성산(聖山). 북동쪽으로 낙동강이 굽이돌아 흐르고, 남쪽에는 광활한 김해평야가 펼쳐져 있다. 특히 신어산 자락, 울창한 숲과 암석이 조화를 이루며 시원스럽게 폭포수가 쏟아져 내려오는 장척계곡이 압권. 한여름에도 1분 이상 발을 담그기 힘들 만큼 물이 차고 맑아 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는 이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김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최고의 뷰 포인트 / 분산성

분산 정상에 둘레 약 900m, 폭 8m 정도로 쌓은 성벽. 사적 제66호로 낙동강 하류의 드넓은 평야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산꼭대기에 있는 평탄한 지형을 둘러서 그 주위에 남북으로 긴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데, 수직에 가까운 석벽의 높이는 약 3~4m에 이른다. 분산성으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해은사(海恩寺)를 찾는 것. 해은사 옆길로 조금만 내려가면 김해시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지면서 견고하게 쌓은 성벽이 길게 이어진다.

주소 경남 김해시 가야로 405 번안길 210-162



트레킹 · 힐링여행 지금 김해에 가야 하는 세번째 이유



장유화상의 향기를 느끼다 / 동림사

신어산 자락에 자리한, 소박하고 평온한 느낌의 사찰. 촘촘하고 가파른 108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일주문을 지나 절이라기보다 일반 주택에 가까운 한옥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동림사의 일부인 요사채다. 대웅전 뒤로 수직에 가까운 암벽이 그대로 드러난 신어산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앞마당엔 묵직한 소리로 신어산의 정기를 깨울 듯한 종루가 자리하고 있다. 동림사는 가락국 초기,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염원하는 뜻에서 허왕후의 오빠인 장유화상이 창건했다고 전한다.

주소 경남 김해시 신어산길 144 전화 +82-55-337-0001



영화 <달마의 놀자> 촬영지 / 은하사

'신령스러운 물고기'란 뜻을 가진 신어산 서쪽 자락에 자리한 사찰. 전설에 따르면 가락국 시조 수로왕의 왕후인 허황옥의 오빠 장유화상이 창건했다고 한다. 당시의 이름은 서림사(西林寺)였다. 그러나 전설 속의 창건 연대가 불교 전래 이전인 서기 1세기에 확실한 고증은 할 수 없다. 단, 전설이 사실이라면 은하사는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사찰에 해당한다. 조선 중기 이전까지 있던 건물은 동림사와 함께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고, 지금의 건물은 조선 후기 양식을 따랐다. 영화 <달마야 놀자>의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졌다.

주소 경남 김해시 신어산길 167 전화 +82-55-337-0101-85

World Best Beaches for Four Seasons

일상 탈출 일번지, 세계의 해변

똑딱똑딱 시계바늘처럼 돌아가는 어제와 같은 오늘. 멈춰진 꿈자리에서 자판을 두드리며 풀어보는 휴양은 너르고 푸른 해변이다. 한달음에 내달리면 펄떡이는 심장마저 쪽빛으로 물들일 것 같은 바다. 똑똑 떨어지는 열기 아래 여름빛 해변은 뜨겁고, 가을바다는 리드미컬한 낭만곡을 연주한다. 소리 없는 겨울바다마저 추억의 소용돌이로 인도하는 그곳. 거센 숨을 몰아쉬며 찾은 탈출구에서 푸르게 일렁이는 그대, 파라다이스를 본다. 에디터 전채련 사진 <AB-ROAD> 자료실



말레이시아 Malaysia

페낭 여행의 정수, 바투 페링기(Batu Ferringhi)

찾아가는 법 조지타운에서 북쪽 해안을 따라 약 30분

영락없이 거북을 닮은 페낭 섬은 말레이시아의 대표 여행지다. 1년 내내 화창한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 어떤 자연재해도 비켜가는 천혜의 위치 조건은 '신의 은총을 받은 땅'이라 불릴 만하다. 여행자의 몸과 마음을 감싸는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도 페낭의 매력 중 하나. 섬의 북쪽 해안에 위치한 '바투 페링기' 해변은 페낭을 손에 꼽을 만한 휴양지로 등극시켰다. 흑설탕처럼 보드라운 갈색 모래사장과 탁 트인 해변을 따라가면 고급 리조트가 즐비하다. 상그릴라 라사 사양리조트, 상그릴라 골든 샌드 리조트, 무피아라 비치 리조트 등 최고의 리조트들이 전용 해변을 끼

고 우뚝우뚝 서 있다. 이곳에서는 패러세일링·제트스키·바나나보트 등 각종 레포츠도 맘껏 즐길 수 있고, 산호초가 발달한 작은 섬으로 이동하면 스노클링도 가능하다. 열대어에게 먹이를 주는 코랄 섬 투어도 특별한 즐거움 중 하나. 바투 페링기는 하니무너는 물론 가족여행자들로 사계절 변함없이 붐빈다. 최근 페낭은 여자 혼자 떠나는 여행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낮에는 워터 스포츠를 만끽한 후, 밤에는 활기찬 야시장에서 저렴한 토산품과 기념품을 구경하며 쇼핑을 즐겨보자. 해변과 도시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휴양지에서 우아한 휴일을 보낼 수 있다.



중국 China

바다를 향한 해안 산책로와 바다관(八大关)

찾아가는 법 칭다오역에서 버스 202, 304, 316, 321번 탑승 후 우성관루(武胜关路)에서 하차. 상강시루(香港西路)를 따라 동남쪽으로 걷다가 쓰징관루(紫荆关路)가 나오면 그 길로 걷는다. 700m 정도 바다 방향으로 걸어가면 바다관이 보인다.

칭다오를 여유롭게 관광할 수 있다면 해변을 산책하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다. 바다관(八大关)은 칭다오 제2의 해수욕장으로 북쪽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식 건축물이 가득 해 눈길을 끈다. 1920~30년대엔 주변으로 산해관, 정양관 등 8개 관문이 자리해 바다관(八大关)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현재는 산해관, 정양관, 가옥관, 문승관, 자형관, 정무관, 거용관, 소관, 함옥관, 임진관의 10개 관문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바다관이라 불린다. 무려 40.6km에 이르는 해안 산책로는 여러 해변과 공원, 잔차오를 포함해 스라오런(石老人)까지 이어지는 거

리를 모두 걸을 수 있다. 군데군데 벤치와 조명 장식, 산책로 정보 등을 배치해 쉬엄쉬엄 걷기에 좋다. 해안 산책로 중 제3해변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만국건축박물관'이라 불리는 바다관이 나온다. 유럽 열강(24개국)이 칭다오에 남긴 300여 개의 건축물은 단풍나무, 꽃나무와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정을 연출한다. 주말이면 중국 각지에서 단체로 야외촬영을 나온 예비 신랑과 신부들로 봄버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 기나긴 산책로를 따라 리아스식 해변을 걷는 것도 운치 있으니, 느린 여유를 누리보자.



한국 Korea

산호빛 바다의 미색에 풍덩! 통영 비진도

찾아가는 법 통영 여객선터미널에서 배편 이용(약 40~50분 소요)

통영·거제 앞바다엔 매물도와 소매물도만 있는 게 아니다. 연대도와 만지도, 한산도, 장사도, 비진도, 학림도 등 수려한 외모를 갖춘 섬들이 곳곳에 자리한다. 그중 비진도는 섬에 미인이 많아 미인도라 불리다가 충무공이 해전에서 승리한 뒤 비진도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570개 섬이 쪽빛 바다 위에 빗어놓은 풍경, 이 한가운데에 비진도가 있다. 시인 정지용은 통영 미륵산에 올라 비진도를 바라보며, '문필로는 그 아름다움을 묘사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산호길을 따라 미인전망대에 오르면 산호빛 바다가 해변 양쪽으로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이 모습이 유명세를

타며 매년 수많은 여행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또 선유봉에 서면 바다 한가운데 펼쳐진 모래톱 길 이 한눈에 들어온다. 아슬아슬 연결된 길 한쪽으로는 고운 모래사장, 다른 쪽으로는 몽돌 해변이 시야에 들어온다. 이토록 이국적인 경치는 세계 어느 휴양지와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누구라도 셔터를 누르는 손길을 멈출 수 없을 터. 이곳 일대를 걷는 트레킹길을 가리켜 '비진도 산호길'이라 한다. 일 년 내내 팔색조 같은 자연미로 여행자를 반기는 비진도로 가보자.



일본 Japan

도심 한복판의 비키니 행렬, 후쿠오카 시사이드 모모치(シ サイドももち)

찾아기는 법 JR하카타 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

후쿠오카 시내 중심부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인 '시사이드 모모치'는 인공 해변이다. 누가 귀뽀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아름답다. 특히 이곳은 세계의 유수한 해변 못지않게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랑한다. 1.4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인공 백사장은 파도소리 너머 외국인 여행자와 데이트나 피크닉을 즐기는 일본인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수영복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는 후쿠오카 젊은이의 S라인과 X라인을 구경하는 것도 커다란 재미. 해변 한가운데 위치한 쇼핑몰 마리존에는 술과 레스토랑이 모여 있어 먹거리와

불거리가 풍성하다. 이색적인 것으로는 쇼핑몰 내에 자리 잡은 성당. 바다를 배경으로 로맨틱한 결혼식까지 올릴 수 있다. 해변에 서면 후쿠오카의 랜드마크인 후쿠오카 타워가 손에 잡힐 듯 보인다. 이때 인증사진은 필수. 후쿠오카 타워는 높이 234m로 일본에서 해변에 세워진 타워 가운데 가장 높으며, 외관은 약 8,000장의 반투명 거울로 덮여 있다. 전망대는 지상으로부터 116m 지점과 123m 지점에 있으며 워터프론트 지구, 하카타만(灣) 등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누구라도 들뜨게 만드는 도심 속 해변에서 환상적인 낭만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러시아 Russia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아무르스키 해변(Amursky Bay)

찾아기는 법 스펙트란스카야 거리(Svetlanskaya Str.) 서쪽 끝에 위치하며, 중앙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블라디보스토크는 항구 도시로서, 동해의 아무르만과 우수리만 사이로 뻗어 있는 반도 서쪽의 줄로토이만을 감싸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지방 남쪽 끝에 위치해, 얼지 않는 항구란 장점으로 해군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9,288km를 달리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시작점이며서 종착지인 블라디보스토크. 아무르스키 해변의 낭만과 진한 보드카의 열정을 담은 이들로 가득한 곳이다. 철도 도시이자 항구 도시인 이곳엔 사사사찰 전 세계인이 빼곡히 모여든다. 발길 닿는 곳마다 형형색색 블라디보스토크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싶다면 아무르스키 해변으로

가보자. 해변을 따라 약 2km에 이르는 메인 산책로가 마련돼 있다. 멋스러운 카페와 레스토랑, 바, 극장이 준비해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가 즐겨 찾는다. 특히 해질 무렵 로맨틱한 조명이 들어오면 낮과는 다른 연인의 거리로 탈바꿈한다.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무리와 해변을 산책하는 사람들,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 기념사진을 찍는 여행객 등 다채로운 풍경이 거리를 장식한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아무르스키 해변. 잊고 지낸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대만 Taiwan

검은 모래 해변, 치진풍경구(旗津風景區)

찾아기는 법 치진 페리 터미널 하차(가격대 100~300위안)

대만 가오슝 항구를 둥글게 에워싸고 있는 치진섬. 대만 사람들에게 데이트 코스이자 나들이 장소로 유명하다. 치진섬은 '치진풍경구'란 이름으로 불릴 만큼 사찰, 등대, 검은 모래 해변까지 아름다운 볼거리와 각종 길거리 음식, 해산물 거리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치진 섬의 서부 해안을 따라가면 그림 같은 풍경을 만나게 된다. 어디서든 대만 해협이 두 눈에 잡혀 느긋하게 걸으며 흥미로운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다. 검은 모래 해변에 가기 전 꼭 들러야 할 곳은 해산물 거리.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치진섬 투어가 시작된다. 이곳의 가게들은 싱싱한 해산물을

즉석에서 요리해주기 때문에 신선한 풍미를 자랑한다. 섬 인근에서 잡아 올린 해산물이라 가격도 저렴하니 꼭 한 번 맛보도록 하자. 해산물 거리를 쭉 따라 올라가면 치진섬의 보물, 검은 모래해변이 나타난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검은색을 띠는 모래가 끝없이 펼쳐진다. 어디에서도 보기 쉽지 않은 이색적인 풍광. 바다로 시선을 돌리면 거친 파도 위에서 맘껏 묘기를 부리는 서퍼들도 볼 수 있다. 까만 모래와 파란 바다가 놀라운 조화를 이루는 치진섬에서 나만의 휴식을 꿈꿔보자.



김해시장
허성곤

김해, 역사문화 유적지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관광 자원

김해시는 '가야왕도 김해'란 도시 브랜드가 말해주듯, 2천여 년 전 해상왕국 가락국의 수도로서 가야 문화의 중심축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인구 53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해, 남해안의 지리적·전략적 요충지인 점을 살려 김해 신공항 확정, 부산·울산·경주와의 접근성 강화 등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에디터 전채연 자료 협조 김해시청, TPO

먼저 김해가 가진 관광 자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해시는 가야의 역사가 시 전역에 펼쳐진 보물 같은 곳입니다. 우리 시의 정체성 역시 '가야'란 역사 자원이죠. 또한 곳곳에 지난날의 흔적을 살필 수 있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수로왕릉과 수로왕비릉입니다. 수로왕과 허왕후의 세기적 로맨스를 스토리텔링화한 역사관광 자원을 살펴볼 수 있죠.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와 사저, 봉하마을뿐 아니라 사충신의 유적, 한글을 사랑한 허웅 선생의 발자취 등 가야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 시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해를 방문하려는 여행자에게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으시다면?

올해 4월에 개장한 김해낙동강레일파크와 김해가야테마파크, 롯데위더로 이어지는 3가지 테마파크입니다. 그중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은 '김해가야테마파크'인데요. 가야 문화를 단순히 나열한 박물관식 볼거리가 아니라 체험거리 등을 두루 갖춰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좋습니다. 최근엔 공원 전체에 빛을 더한 철광산 공연장과 태극전의 미디어퍼사드 공연 등 '빛 축제'가 함께 펼쳐져 밤에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해를 방문한 국내의 관광객 수와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2015년 약 710만 명의 관광객이 김해를 방문했습니다. 대개 내국인이었지만 외국인 관광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천만 관광객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죠. 관광 분야 중 가장 두드러지게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것은 '가야 문화 축제'입니다. 매년 4월경 개최되는데, 올해는 5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역대 최다인 145만여 관광객이 행사장을 방문했습니다. 경제적인 수익도 무려 562억 원에 달했죠. 또 올해 개장한 '김해낙동강레일파크'는 현재까지 24만 1천 명이 방문했고, 봉하마을은 매년 8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해시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매년 1~2회 이상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중국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 '경남 합동 관광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현지 여행사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김해시의 관광 자원 및 관광 상품(코스)을 소개하고 있죠. 또한 TPO와의 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관광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TPO의 'Newsletter', 'Tourism Scope' 등에 김해시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TPO 관광 교역전 및 관광 포럼에 참가해 김해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김해시는 인근 지역과 연계한 국내의 공동 관광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TPO 등 연계 기관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어나갈 것입니다.



김해시 관광 산업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해시는 최근 김해 신공항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 관광지로서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가야 문화의 유적지가 집중된 원도심을 중심으로 다문화 광장과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여러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죠. 또한 가야 고분의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도 김해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가야사 2단계 복원 사업’은 가야 건국 신화의 성지인 구지봉과 대성동 고분군 간의 단절된 유적 환경을 벨트화하고, 문화 유적지로 복원할 수 있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제적인 트렌드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안동공단을 ‘투자 선도 지구’로 지정받아, ‘김해 국제 의료 관광 융합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항, 철도, 고속도로 등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살린 새로운 의료 관광지로서의 도약도 기대되는 부분이지요.



오는 11월, 김해시는 부산시와 ‘허왕후 신행길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두 개의 시가 콜라보한 축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허왕후 신행길 축제’는 김해시와 부산시가 2014년부터 시작한 공동 사업으로, 연결된 교통망을 활용해 관광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추진했습니다. 인도에서 김해까지 오는 신행길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하며, 김해 고유의 관광 콘텐츠인 허왕후의 이야기를 테마로 삼아 김해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려 합니다.

TPO와 TPO 회원 도시를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의 미래 주요 키워드는 ‘연계, 화합, 협력’입니다. IOT, 증강현실 등을 기반으로 지역과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세상 속에서 TPO 회원 도시는 서로 협력해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TPO 회원 도시 모두가 기사 교환 사업은 물론 TPO 관광 교역전, TPO와의 연계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라며, 김해시와의 공동 마케팅에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7회 TPO포럼 및 실무급 회의 개최

제7회 TPO포럼 및 실무급 회의(이하 포럼)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에서 성공리에 개최됐다. TPO포럼은 2년마다 열리는 TPO 공식 행사로, 관광산업에 관한 중요 사안 등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6월 14일 오전, 전주시 한국전문화전당에서 열린 개막식에선 개최 도시인 김승수 전주시장과 TPO 공동회장도시인 김동진 통영시장, 다토 파타히야 빈티 이스마일(Dato Patahiyah Binti Ismail) 말레이시아 페낭 시장을 비롯해 32개 회원도시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TPO 회장도시를 대표해 기조연설을 한 중국 광저우 시의 탄 아이잉(Tan Aiying) 부국장은 "TPO포럼은 국제관광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협력을 다질 수 있는 최고의 장이다. 전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들이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인관광(Aging & Tourism)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선 한국과 일본, 중국을 대표해 관광 분야 전문가 3인의 발표가 있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소 최경은 박사는 '한국에서의 노령 : 관광에 대한 기회와 도전'이란 주제로 발표했고 일본 JTB종합연구소의 주임연구원 타나카 요코 씨는 '일본의 새로운 노인세대 부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중국 베이징 연합대학교 관광학과 부학장 선 먼양 교수는 '중국에서 노인들의 관광 욕구와 행동 패턴 분석'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기조발표에 이어 경희대학교 김철원 교수의 사회로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회가 마련됐다. 14일 오후엔 회원도시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실무급 회의가 열려, TPO 공동 사업에 관한 논의와 회원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6월 15일엔 전라북도 3개 회원도시 일대(전주, 익산, 군산)를 중심으로 관광 시찰이 이어졌다.



유엔 해비타트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 수라바야에서 개최

주택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주제로 한 유엔 해비타트 제3차 준비위원회(PrepCom3) 회의가 7월 25일부터 31일 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엔 UN 회원국 장관 33명을 비롯해 193개국에서 온 수백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유엔 해비타트 사무총장인 후안 클로스는 25일 열린 개막식을 통해 "제3차 준비위원회는 유엔 회원국과 지방정부 등이 제3차 해비타트 회의에서 제안된 새로운 도시 관련 의제에 대한 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4차 회의는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될 예정. 세계 인구의 54.5%가 도시에 살고 있다.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은 1996년 45.1%를 기록한 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 TPO 베스트 어워드 수상자 발표

6월 15일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JS호텔에서 '2016년 TPO 베스트 어워드 시상식'이 개최됐다. TPO는 회원도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10개의 관광 분야에 대해 1년간 우수 활동을 한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베스트 어워드를 선정한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 2016년 TPO 베스트 어워드의 마케팅 캠페인상은 대한민국 고양시에 돌아갔고, 베스트 인쇄광고상은 말레이시아 이포시, 방송광고상은 중국 광저우시와 대만 타이난, 축제 및 이벤트상은 베트남 호치민시와 대한민국 부산 중구가 수상했다. 한국 인천시와 중국 산야시는 프로모션 CD, 한국 대전시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는 홍보 브로셔 상을 공동 수상했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는 웹사이트, 한국 통영시는 홍보 캠페인상을 수상했다. 관광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한 리더에게 주어지는 도시관광경영자 상은 칭다오시의 최덕지(Cui Dezhi) 여류국장이, 관광산업리더 상은 페낭시의 다토 파타히야 빈티 이스마일 시장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AWARD CATEGORY	NAME OF THE AWARDED CITY
Best Marketing Campaign	Goyang, Korea
Best Print Advertisement	Ipoth, Malaysia
Best Broadcast Advertisement	Guangzhou City
	Tainan
Best Festival & Event	Ho Chi Minh City, Vietnam
	Busan, Jung - Gu, Korea
Best Promotion Cd	Inchoen, Korea
	Sanya City
Best Tourism Brochure	Yogyakarta City
	Daejeon City
Best Website	Kuala Lumpur City
Best Destination Manager	Qingdao City
	Mr. Cui Dezhi, Director General
Best Tourism Industry Leader	Penang City
	Dato Patahiyah Binti Ismail, Mayor Of Penang Island
Best Public Relations Campaign	Tongyeong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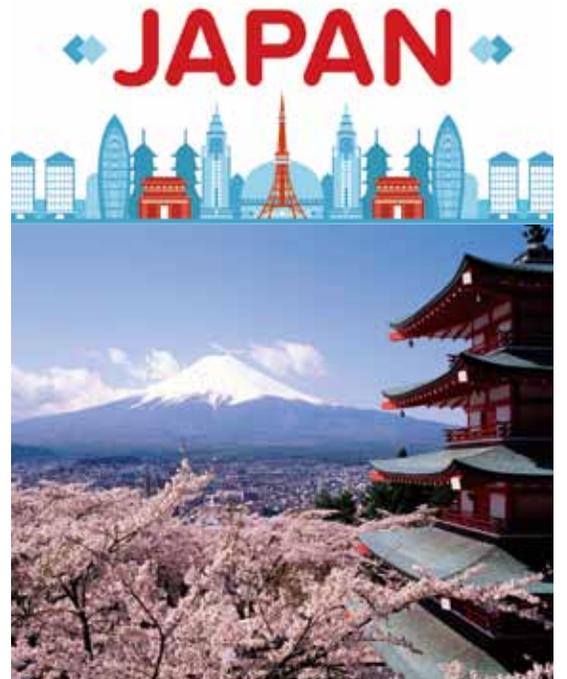


K-CLIP 2016, 한국 통영시에서 개최

'K-CLIP 2016'은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와 TPO 공동회장도시인 통영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김해시가 후원해 8월 8일부터 21일까지 통영시 지속가능발전재단 세아트라스룸에서 개최됐다. TPO 학생여행교환사업(STEP)의 일환으로 개최된 'K-CLIP 2016'은 한국의 여행과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 대학생들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7개국, 20개 도시에서 온 학생 30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Let's Dive into Korean Language & Culture Together'라는 주제로 참가자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장래 한국 관광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한국어 실력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 전문 강사의 지도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과 통영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특별 강좌를 수강했다. 이들은 통영 오광대(가면극)와 통영 전통공예, 사물놀이, 한국전통놀이, 한과 만들기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첫째 주에는 통영투어 길라잡이와 함께 통영 관광지를 둘러보고, 미륵산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 통영시 일대를 조망했다. 14일엔 1박 2일 일정으로 섬 투어를 진행, 둘째 주엔 부산, 울산, 김해를 둘러보며 한국의 관광자원을 시찰했다. 투어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Korea Through My Eyes'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PPT와 UCC를 그룹별로 제작·발표해 호응을 얻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 일본 46개 관광 모델 코스

일본정부관광국(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은 일본 전국 관광지를 돌면서 쇼핑과 먹거리, 역사와 문화, 자연 등 다양한 테마로 즐길 수 있는 관광 모델 코스를 홈페이지(<http://shopping-course.jnto.go.jp/en>)에 공개했다. 이번 코스는 총 46개. 일본관광청과 지방 운수국에서 책정한 것으로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모델 코스엔 후쿠오카와 기타큐슈, 시모노세키, 구마모토, 다케오 등 TPO 회원도시를 중심으로 자연과 문화, 음식, 체험, 전통, 쇼핑 등과 연계한 관광 코스를 다수 소개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은 4월 중순, 규슈와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 정보와 교통 상황도 영문 홈페이지에 실시간 안내한다.



태국, 일본 여행 붐

2012년 태국 국제항공의 삿포로 직항이 취항하면서 '삿포로 눈 축제'를 보려는 태국인 여행자가 급증, 일본 여행의 붐이 일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7월부터 태국인에 한해 15일 이내 체류할 경우 무비자 방문을 허용, 방일 태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4월은 방일 외국인 수가 208만 명을 넘으며 2개월 연속 200만 명을 돌파, 그중 태국인 여행자도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전년 대비 15% 급증했다. 붐이 일어난 초기엔 단체 여행객이 많았지만, 최근엔 개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북부에서 남부로 이어지는 5일간의 고된 코스였지만, 점차 1~2개 도시를 느끼기 둘러보는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2016 KL타워 인터내셔널 점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 2016년 9월 30일~10월 3일

장소 칼라룸푸르 KL타워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칼라룸푸르 KL타워(므나라 칼라룸푸르)에서 '2016 KL타워 인터내셔널 점프 말레이시아(KLTIJM)'가 열린다. 이 행사는 국제적으로 호평 받는 익스트림 스포츠 이벤트. 해발 300m 타워헤드 5에 위치한 KL타워의 오픈 플로어에서 엄청난 액션을 경험할 수 있다. 1999년 10월 3일부터 시작된 'KL 타워 인터내셔널 점프 말레이시아(KLTIJM)'는 KL타워의 3주년을 기념해 시작됐으며,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 행사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첫 번째 스포츠 점프 이벤트로서, 세계적인 기록이 실리는 말레이시아의 책(Malaysia Book)에도 수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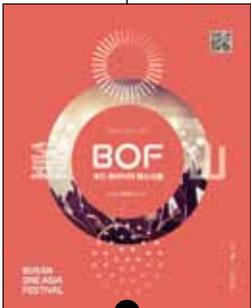


2016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한국, 안동 2016년 9월 30일~10월 9일

장소 탈춤공원, 하회마을 등 안동시내 일원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2016'이 20주년을 맞이해, '스무살 총각탈, 각시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축제는 탈과 탈춤, 사랑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플라잉 퍼포먼스, 토론 댄스 등이 결합된 축제 20주년 기념 개막식과 세계 18개국 25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부산 원 아시아 페스티벌

한국, 부산 2016년 10월 1일~23일

장소 벅스코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등 부산 일대

부산에서 K-팝, K-뷰티, K-푸드 등 한류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이 펼쳐진다.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벅스코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등 부산 일대에서는 영화제와 불꽃 축제, 화려한 퍼포먼스로 가득한 개·페막 공연이 진행된다. K-POP 단독 콘서트와 팬 미팅, 원 아시아 테스트 부산 등 다양한 볼거리도 가득하다.



2016 신라 문화제

한국, 경주 2016년 10월 3일~9일

장소 경주시내 일원

1962년부터 시작된 '신라 문화제'는 신라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 축제. 유서 깊은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제와 개막식에서는 신라 왕경의 조기 복원을 기원하는 팔관회,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진다. 신라 고취대를 중심으로는 길놀이, 대규모 줄다리기, 민속 공연 등이, 금장대와 서천 둔치 일원에서는 유등 및 부교 설치, 전통 예술 공연 등이 이어진다.



제7회 JATIM 축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2016년 10월 6일~16일

장소 수라바야 그랜드 시티 컨벤스

'제7회 JATIM 축제'가 그랜드 시티 컨벤스에서 개최된다.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여러 물건들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수많은 사업가들이 모여든다. 인도네시아 동부에서 제일 큰 규모로 펼쳐지는 전시 이벤트이니만큼 놓치지 말자.



2016 난양 국제 민속 예술 축제

중국, 타이난 2016년 10월 8일~16일

장소 타이난시 난양 휘두신 공원

1996년에 시작된 '난양 국제 민속 예술 축제'는 지방정부가 주최한 대규모 국제 예술 문화 행사. '현지에서 세계를 만나다'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각국 민속 예술팀을 초청해, 세계 각국 민속 예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타이난과 타이완의 예술, 문화에 대한 공연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회 행사 때부터 자매기관을 맺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타이난 시민이 직접 호스트가 돼 공연팀을 맞이, 그들을 데리고 직접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케 하는 것. '국민 외교' 방식을 통해 세계 친구들을 감동시키고 돈독한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

한국, 김해 2016년 10월 14일~23일

장소 김해분청도자관 일원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가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경남 김해시 진례면 김해분청도자관 일원에서 화려하게 개최된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는 매년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한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김해 도자 명품전', '김해 도자 신작전'을 비롯한 전시 프로그램과 '나도 도예가', '가족 흙쌓기 대회', '대형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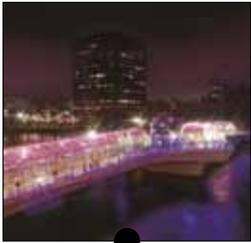


월드 관광업 컨퍼런스

말레이시아, 페낭 2016년 10월 17일~19일

장소 페낭 Eastern & Oriental 호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월드 관광업 컨퍼런스'가 페낭에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문화관광부와 말레이시아, 유엔 월드 관광 단체(UNWTO)가 함께 주최했다. 70개국의 각 나라 대표들이 참석해 TPO 회원국의 관광 정책을 집중적으로 토의한다. 말레이시아에서 4번째로 열리는 컨퍼런스로 페낭에서는 처음이다.



2016 오구라 일루미네이션

일본, 기타큐슈 2016년 11월 초순~2017년 1월 중순

장소 JR 오구라 역과 무라사키강 주변

동절기나 연말연시에 맞춰 개최되는 '2016 오구라 일루미네이션'.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일본 야경 유산'에 등록됐다. '세계 절경 10'에 선정된 카와치 등나무 공원의 등나무 터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터널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무라사키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폭포를 이미지화한 풀링 일루미네이션도 볼거리. 행사 기간 내내 매일 오후 5시~10시까지 일제히 점등된다.



가고시마 오히라 축제

일본, 가고시마 2016년 11월 2일~3일

장소 가고시마 일대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2016'이 20주년을 맞이해, '스무살 총각탈, 각시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축제는 탈과 탈춤, 사랑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플라잉 퍼포먼스, 토론 댄스 등이 결합된 축제 20주년 기념 개막식과 세계 18개국 25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연이 이어진다.



2016 제19회 웨스트레이크 예술박람회

중국, 항저우 2016년 11월 3일~7일

장소 항저우 평화국제컨벤션센터

'웨스트레이크 예술 박람회'는 1998년부터 중국 문학 예술계연합회와 저장성 문학예술계연합회가 창립, 주최해온 행사. 2011년에 중화문화축진회가 주최에 참여하면서 국가 규모의 예술 박람회로 성장했다. 박람회의 1층 전시장에서는 '2016 명인 초대전', 2층에서는 '2016 청년 예술가 추천 전시'와 국내외 화랑, 예술단체의 예술품 거래가 이뤄진다.



2016 정저우 스포츠 아웃도어용품 박람회

중국, 정저우 2016년 11월 12일~14일

장소 정저우 국제컨벤션센터

'정저우 스포츠 아웃도어 용품 박람회(이하 ZSOF)'는 허난 및 중부 지역에서 가장 전문성을 띤 업종 박람회. 참가 업체 및 관람객에게 헬스 기기, 자전거 용품, 스마트 헬스 디바이스, 인라인 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패션, 구기 스포츠 및 기타 제품, 경기장 설비, 아동용 아웃도어, 아웃도어 용품 및 설비, 아웃도어 여가 용품 등 다양한 최신 스포츠 용품과 아웃도어 용품을 소개한다. '정저우 스포츠 아웃도어 용품 박람회'는 박람회의 높은 수준과 많은 관람객으로 허난 지역과 중부 전체 시장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거래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2016 베트남 푸드 엑스포

베트남, 호치민 2016년 11월 16일~19일

장소 사이공 전시 & 컨벤션 센터 (SECC)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2016 베트남 푸드 엑스포'와 '2016 베트남 국제 푸드 산업 전시회'가 호치민 시의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베트남에서 큰 규모로 열리는 무역 이벤트로, 베트남 음식 산업의 특화된 부분을 엿볼 수 있다. 다양한 음식과 음료, 유기농이거나 천연 식품, 음식 가공품, 푸드 서비스 등 음식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작년에 열린 첫 번째 '2015 베트남 푸드 엑스포(2015년 5월 13일~16일)'는 각 지역을 비롯해 세계 33개국에서 10,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대성공을 거뒀다. 특히 19개국 300여명의 출품자가 대거 참석해 그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2016 군산-서천 금강 철새 여행

한국, 군산 2016년 11월 18일~20일

장소 군산 철새 조망대, 금강 습지 생태 공원,

서천 조류 생태 전시관 일원

'2016 군산-서천 금강 철새 여행'이 군산 금강 철새 조망대를 시작으로 금강 습지 생태 공원, 서천 조류 생태 전시관에서 열린다. 군산시와 서천군에서 상생과 협력을 위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두 번째 행사. 군산시에서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진행되며, 군산시와 서천군 행사장에서 생태 체험 프로그램, 탐조 투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제34회 시모노세키 생선 축제

일본, 시모노세키 2016년 11월 23일

장소 시모노세키어항

수산 지리라 불릴 정도로 생산량이 많은 시모노세키에서 '시모노세키 생선 축제'가 펼쳐진다. 생선 요리의 보급화와 소비 확대, 수산업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3년에 처음으로 개최됐다. 선어와 활어를 비롯해 북회, 초밥, 수산가공품을 파는 생선장 외에 생선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요리 교실도 열릴 예정이다. 먹거리 이벤트로 슈퍼 점보 북 냄비 요리와 고래 냄비 요리, 아귀 냄비 요리도 맛볼 수 있다.



2016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

한국, 부산 2016년 11월 26일~2017년 1월 1일

장소 부산 중구 광복로 차 없는 거리 전역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부산 최고의 겨울 축제.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전등으로 광복로 일대를 가득 채운다. 11월 26일 개막 점등식을 시작으로 매일 저녁 열리는 데일리 콘서트,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 성탄 음악회 등이 펼쳐진다. 화려한 불빛 아래 다양한 볼거리가 풍성하니, 올 연말엔 부산 광복로로 향해보자.



2016 청두 국제 여행 박람회

중국, 청두 2016년 12월 1일~3일

장소 청두 스지청신 국제컨벤션센터

‘청두 국제 여행 박람회(이하 CITE)’는 중국 서부 지역의 전문성과 소비가 결합된 대형 여행 전문 박람회. 청두 여유국과 청두 박람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CITE는 여행 운영 업체와 여행 애호가에게 상호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대중이 직접 여행 관련 소비를 접하고, 관련 기업과 기관이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하는 여행 종합 플랫폼. 여행 애호가에게는 종합적인 여행 노선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여행 계획을 세워주는 것은 물론 여행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형 여행사, 항공사와 함께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새롭고 다양한 관광 노선과 상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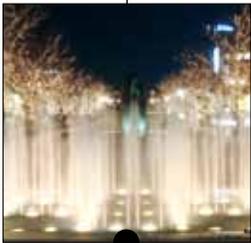


2016 쑤저우 삶의 질 엑스포

중국, 쑤저우 2016년 12월 9일~20일

장소 쑤저우 국제엑스포센터

쑤저우는 장강 삼각주의 경제 중심 지역. 2015년 쑤저우의 GDP는 14504억 달러를 기록해 장쑤를 앞질렀고 일인당 GDP는 상하이와 베이징을 추월했다.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쑤저우는 거대한 소비시장. 통계에 따르면 동기 대비 13.1% 증가한 일인당 소비 지출 항목에서 식품, 외식, 고급 트렌드 등 개인 만족형 소비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쑤저우 삶의 질 엑스포’는 매년 가을과 겨울 쇼핑 성수기에 쑤저우 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린다. 역대 참가 업체와 관람객이 수만 명에 이를 만큼 이목을 끈다. 엑스포는 브랜드 패션, 섬유 직물, 선물, 문화 창의 제품, 가구, 가전, 친환경 식품, 여가 식품 등 전시 품목이 수만 가지에 이른다.



미나토오도리 공원 일루미네이션

일본, 가고시마 2016년 12월 1일~2017년 1월 31일

장소 미나토오도리 공원 일대

미나토오도리 공원의 중심인 가로수길에서 일루미네이션을 점등한다.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57개 느티나무와 분수대, 조각 작품을 일루미네이션으로 물들어 걷기 즐거운 산책길로 만든다. 약 11만 개의 전구로 이뤄져 환상적인 겨울 야경을 구경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연초에는 새벽 0시 15분까지 행사를 진행해, 아름다운 빛의 세계를 선물한다.



송년 불꽃 축제

한국, 거제 2016년 12월 31일

장소 거제시 장승포항 일원

‘송년 불꽃 축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연말연시 축제. 화려하게 하늘을 수놓는 불꽃을 따라 민속놀이와 이색 체험, 각종 축하 공연 등이 펼쳐져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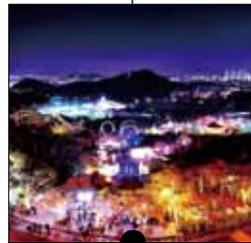


2017 제11회 마크플러스 컨퍼런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6년 12월 8일

장소 자카르타

2006년부터 개최된 ‘마크플러스 컨퍼런스’는 매년 마크플러스 Inc.가 주최하는 큰 마케팅 이벤트. 인도네시아 마케팅의 특징을 소개하며, 미래의 마케팅 트렌드를 예측한다. 마크플러스 컨퍼런스가 특별한 이유는 참석자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는 수업과 인도네시아의 마케팅 브레이크아웃 세션. ‘2017 마크플러스 컨퍼런스’엔 총 5000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SEAN 국가와 인터넷서널 기업체의 간부들은 물론, 마케팅 담당자, 학술 위원, 학생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자리를 빛내줄 예정이다. 이밖에 500개 유명 기업과 전문가 50명의 발표도 함께 진행된다. 9년간 성공리에 개최되어 온 ‘마크플러스 컨퍼런스’는 동남아시아에서 최고의 마케팅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이월드 별빛 축제

한국, 대구 2016년 12월 31일까지

장소 대구 이월드, 83타워 일대

‘2016 이월드 별빛 축제’의 테마는 10만 송이 LED장미. 830만 개의 별빛들이 수를 놓는 한국 최고의 명품 ‘별 테마’ 축제다. 대구 대표 테마파크 이월드의 30여가지 놀이 기구와 경북의 랜드마크인 83타워의 아름다운 전망은 물론 야경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이색적이다. 수시로 진행되는 화려한 불꽃 쇼, 83가지 별빛 포토존 등 다채로운 체험 거리가 넘쳐난다.



제19회 호미곶 해맞이 축전

한국, 포항 2016년 12월 31일~2017년 1월 1일

장소 포항시 호미곶 해맞이 광장 일원

일출의 명소 호미곶에서 열리는 해맞이 축전. 해맞이 광장과 해맞이 타워, 전시관, 수족관 등에서 펼쳐지는 본격적인 해돋이 관광 축제다. 12월 31일 전야 행사를 시작으로 풍물 길놀이, 국악 콘서트, 매직 불꽃 쇼, 호미곶 파티 타임, 해맞이 행사, 1만 명 떡국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퍼포먼스와 이벤트가 진행된다.

TPO Members

78 city members, 38 industry members

CITY MEMBERS

CHINA

Chengdu Urumqi
Qingyuan Weihai
Dalian Yantai
Foshan Zhangjiajie
Guangzhou Zhaoqing
Hangzhou Zhengzhou
Qingdao
Sanya
Shanghai
Shaoguan
Shenyang
Suzhou
Tianjin

CHINESE TAIPEI

Kaohsiung
Taichung
Tainan

THAILAND

Bangkok

VIETNAM

Danang
Hai Phong
Hanoi
Ho Chi Minh

MALAYSIA

Georgetown
Ipoh
Kota Bharu
Kota Kinabalu
Kuala Lumpur
Melaka
Taiping

INDONESIA

Jakarta
Surabaya
Yogyakarta

PHILIPPINES

Manila

KOREA

Andong
Busan
Busan Haeundae-gu
Busan Jung-gu
Buyeo-gun
Changwon
Chuncheon
Daegu
Daejeon
Donghae
Gangneung
Geoje
Gimhae
Goyang
Gunsan
Gwangju
Gyeongju
Hadong-gun
Iksan
Incheon
Jeonju
Namhae-gun
Pohang
Sokcho
Tongyeong
Ulsan
Ulsan Nam-gu
Yeongju
Jeollabuk-do
Ulju-gun

RUSSIA

Vladivostok
Irkutsk

JAPAN

Fukuoka
Kagoshima
Kitakyushu
Kumamoto
Miyazaki
Osaka
Shimonoseki
Takeo

INDUSTRY MEMBERS

CHINA

Guangzhou Garden Hotel
Guangzhou Star Cruises Co., Ltd.
GZ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Ltd.
Shandong Channe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China Travel international (Xinjiang) Ltd.
China Comfort X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Dalian Gul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ITS Guangdong
China Travel International Sanya Co., Ltd.

JAPAN

Kagoshim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Fukuok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JTB Corp. Fukuoka Office

KOREA

BEXCO
Busan Tourism Association
Arum Travel Service Co., Ltd.
Cheongsong Travel Service Co., Ltd.
Road ABC Media Co., Ltd.
TourJapan Co., Ltd.
Intravel Ltd.
Haeundae Centum Hotel
Daegu Tourism Association
Lee Convention
Busan Tourism High School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Solar Travel Agency
BS FunTour
Benikea Jeonju Hansung Tourist Hotel
Sky Tour
JB Tour
PANWORLD Dream
Tour Fun Co., Ltd.

MALAYSIA

Taiping Tourist Association

MONGOLIA

Ancient Nomads Tour Agency

RUSSIA

Gavan Tour-center Co. Ltd

U.S.A

MCM Group Holdings Ltd.

VIETNAM

Haiphong Vanhoa One Member Limited Corporation
Haiphong Vocational College of Tourism

KOREA

TourFun Co.,Ltd.

INDIA

Abroad Consultancy India Pvt. Ltd.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Contact Information

Address. TPO Secretariat, No.7 Jonghabundongjang-ro, Yeonje-gu, Busan 47500, Korea

TEL. +82-51-502-2984~7 FAX. +82-51-502-1968

E-mail. secretariat @ aptpo.org

Web Site. <http://www.aptpo.org>